

규폐증의 조기진단과 진행정도평가에서 Ga-67
스캔의 유용성 검토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, 산업의학과*

* 손형선, 김선예, 김성훈, 박영하, 이성용, 정수교, 신경섭, 구정완*, 정치경*

직업성 질병은 원인 규명과 함께 병의 진행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여 ILO에서 흉부 X선 소견을 기준으로 국제표준화를 시행하여 왔으나 사진의 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초기 병변을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. 본 연구자들은 Ga-67의 섭취정도를 규폐증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능검사, 동맥혈산소 분압 및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임상적 병기분류와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였다.

8명의 규폐증환자에서 15개의 병변을 대상으로 Ga-67 스캔을 분석하였으며 6명의 정상인을 대조군으로하였다. 검사방법은 Ga-67 5mCi을 정맥 주사한 후 48시간 후 전신 스캔 및 흉부, 복부 스캔영상을 얻어 후면상에서 간과 폐병변의 최대섭취 부위의 관심 영역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당 방사능섭취 정도의 비를 구하여 임상적병기분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정상군(n=6): 37.6 ± 3.08 , 1기(n=6): 44.4 ± 11.54 , 2기(n=5): 57.1 ± 12.48 , 3기(n=4): 89.1 ± 32.37 이었으며 정상군과 2기, 3기군 사이는 유의차가 있었으나 ($P < 0.05$), 정상군과 1기군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($P > 0.05$).

따라서 본 연구에 따르면 규폐증이 진행된 환자에서 병기를 결정하는데 Ga-67 스캔이 도움이 되나, 조기 진단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어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.